

련방제방식의 민족통일국가를 창립하는것은 조국통일실현의 가장 합리적인 방도

신 분 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북과 남은 전민족적합의에 기초한 련방제방식의 통일국가를 창립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북과 남은 상대방에 존재하는 서로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우에서 온 민족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련방국가를 창립하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84페이지)

북과 남은 전민족적합의에 기초한 련방제방식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련방제방식으로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는것은 북과 남이 온 민족앞에 엄숙히 확약한 민족공동의 통일방도이다.

북과 남은 력사적인 6.15공동선언에서 우리 공화국정부의 낮은 단계의 련방제안과 남측의 련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그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해나가기로 합의하였다. 하지만 남조선피뢰당국은 거래앞에 다진 공약과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성의있는 노력에 등을 돌려대고 반통일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리고있다.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를 부정하고 일방의 사상과 제도에 의한 통일을 추구하는것은 결국 통일을 하지 않겠다는것이며 전쟁을 하자는것이나 다름없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가 가장 우월하지만 그것을 남조선에 강요한적이 없으며 강요하려 하지도 않는다.

련방제방식의 민족통일국가를 창립하는 방법으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는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시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오신 조국통일방도이며 유훈이다.

련방제방식의 민족통일국가를 창립하는것이 조국통일실현의 가장 합리적인 방도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그것이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할수 있는 최선의 방도로 되기 때문이다.

우리 민족의 절박한 요구와 나라의 현실에 비추어볼 때 조국통일을 빨리 실현할수 있는 최선의 방도는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련방제방식의 민족통일국가를 창립하는것이다.

우리 민족은 누구에게나 접수될수 있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하루속히 조국통일을 이룩할것을 바라고있다.

련방제방식의 민족통일국가는 우선 민족공동의 요구와 리익을 실현할수 있게 하는 통일국가형태로서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할수 있는 최선의 방도로 된다.

하나의 민족으로서 분렬된 나라들에서 통일국가형태는 해당 국가에서 살게 될 사람들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고 나라의 통일문제를 가장 순조롭게 해결할수 있는것으로 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민족공동의 의사와 요구에 기초하여 그 형태가 선택되어야 하며 그 활동에서 민족공동의 요구와 리익을 충분히 보장해주고 실현해주는것으로 되어야 한다.

오늘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민족공동의 요구와 리익은 조국통일이다.

련방제방식의 민족통일국가형태는 련방국가를 형성함으로써 민족공동의 요구와 리익을 실현할수 있게 한다.

련방제방식의 민족통일국가는 북과 남사이에 서로 다른 두 체도가 있는 조건에서도 민족적공통성에 기초하여 복잡한 단계를 거치지 않고 련방국가를 창립하는 방법으로 민족통일을 실현할수 있게 한다. 련방제방식의 민족통일국가는 북과 남이 서로의 사상과 체도를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우에서 수립된 민족통일국가인것으로 하여 서로 먹고 먹히는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다. 련방제방식의 민족통일국가는 련방의 국가구조와 운영의 견지에서 보더라도 북과 남이 권한과 임무에서 평등을 충분히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북과 남의 요구와 리익을 충분히 보장할수 있게 한다.

련방제방식의 민족통일국가는 또한 사상과 체도를 초월하여 북과 남이 민족적단합을 실현하여 민족통일을 이룩할수 있는 통일국가형태로서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할수 있는 최선의 방도로 된다.

우리 나라와 같이 외세에 의하여 분렬되어 서로 다른 사상과 체도가 존재하고 또 그것을 서로 양보하려 하지 않는 조건에서 민족적단합을 실현하여 통일을 실현할수 있는 합리적인 국가형태는 서로 다른 사상과 체도를 공존시키는 원칙에서 창설된 련방국가형태이다.

6.15북남공동선언에서 북과 남이 온 민족앞에 확약한 련방제방식의 민족통일국가는 하나의 강토우에서 하나의 민족으로서 북과 남이 존재한다는 민족적특성과 북과 남의 두 지역에 서로 다른 사상과 체도가 존재한다는 지역의 특수성에 기초한 국가형태로서 사상과 체도를 초월하여 민족적단합을 실현할수 있게 한다.

련방제방식의 민족통일국가는 사상과 체도가 다른 북과 남의 독자성을 보장할수 있게 하는 국가형태로서 민족적단합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한다. 련방제방식의 민족통일국가는 민족통일국가기관들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조직할수 있게 함으로써 두 지역의 독자성을 보장할수 있게 한다. 특히 련방국가기관성원선출에서 독자성과 평등을 보장하도록 하고있다. 련방제방식의 민족통일국가는 하나의 민족으로서 북과 남 두 지역으로 갈라져 있는 조건에서도 두 지역을 하나로 합칠수 있게 하는 국가구조형태로서 민족적단합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한다.

련방제방식의 민족통일국가는 련방국가기관활동에서 지역적편견을 없애고 민족공동의 요구와 련방구성원의 요구를 옹계 결합시키며 국가권력행사에서 련방구성원들의 요구를 옹계 결합시킨다. 이와 함께 국가권력행사에서 련방구성원의 평등을 보장할수 있게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민족의 단합실현에 이바지한다.

민족의 단합은 곧 조국통일이며 민족통일이다.

련방제방식의 민족통일국가창립으로 북과 남의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적자주권이 확립된다.

민족의 자주권은 자주적인 국가주권에 의해 담보된다. 민족통일국가를 창립하는 단계

에 가게 되면 북과 남이 힘을 합쳐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철수시키고 민주주의적인 정권을 수립함으로써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완전히 실현할수 있다. 미국의 지배와 예속밑에 있던 나라의 절반땅에서 민족적자주권이 회복되면 전국적판도에서 민족적 자주권이 완전히 확립되게 된다. 이것은 곧 민족적통일이 실현되었다는것을 의미한다.

련방제방식의 민족통일국가창립으로 북과 남의 전지역을 관할하는 하나의 통일국가가 형성된다.

통일국가의 창건과 민족적통일은 밀접한 련관관계에 있다. 통일국가가 없는 민족적통일에 대해 생각할수 없으며 민족적통일이 없는 통일국가에 대해서 생각할수 없다.

만일 하나의 민족안에 여러 국가가 존재하면 그것은 곧 민족분렬을 의미하며 반대로 하나의 민족안에 하나의 국가가 존재하면 그것은 곧 민족적통일이 이루어졌다는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통일국가의 창건과 민족적통일은 불가분리의 련관속에서 통일적인 과정으로 해결되게 된다. 련방제방식의 민족통일국가가 창건되면 북과 남의 전체 조선민족은 련방국가의 지도밑에 놓이게 되고 분렬되었던 민족의 통일이 실현되게 된다.

련방제방식의 민족통일국가의 창립으로 북과 남사이에 끊어졌던 민족적뉴대가 회복된다.

민족분렬이 70여년간 지속되는 기간 북과 남은 정치, 경제, 문화와 도덕 등에서 차이를 가져왔다.

련방국가가 창립되면 민족의 분렬로 하여 조선의 북과 남사이에 일시적으로 형성되었던 차이가 없어지고 민족적공통성이 더욱 공고화될수 있다.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합작과 교류가 진행되고 민족적뉴대가 회복된다. 북과 남사이에 오래동안 끊어졌던 민족적뉴대가 회복되고 민족적공통성이 공고화되면 결국 민족적통일이 실현된다.

련방제방식의 민족통일국가를 창립하는것이 조국통일실현의 가장 합리적인 방도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그것이 나라의 통일을 가장 공정하고 순조롭게 실현할수 있게 하는 합리적인 방도로 되기때문이다.

련방제방식의 통일은 어느 한쪽의 우위나 리익만을 추구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 합리적이고 공명정대한 통일방도로서 나라의 통일문제를 가장 공정하고 순조롭게 해결할수 있는 합리적인 방도이다.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제도가 세워진지도 반세기가 지난 오늘에 와서 어느 한쪽의 제도에 의한 통일을 실현하려고 한다면 통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분렬을 심화시키고 돌이킬수 없는 민족적재난을 가져오게 될것이다.

련방제방식의 민족통일국가를 창립하는것이 나라의 통일을 가장 공정하고 순조롭게 해결할수 있게 하는 합리적인 방도로 된다는것은 우선 그것이 민족통일국가의 국호를 북과 남이 다 지지하고 받아들일수 있도록 제안하고있는데서 나타난다.

련방제방식의 민족통일국가창립방안에서는 북과 남의 어느 한쪽의 우위나 리익만을 추구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도록 민족통일국가의 국호를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이라고 정하고있다.

국호문제는 국가건설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그것은 국호에 매개 나라

의 역사적, 민족적특성과 국가의 정치리념, 국가구조, 정치체제가 집중적으로 반영되기때문이다.

고려는 오래동안 존재해온 조선의 통일국가의 이름이며 세계의 동서대륙들에 널리 알려져있다. 고려라는 이름은 조선의 북과 남의 어디에도 잘 통하는 보편성을 가지고있으며 조선민족의 감정도 맞는다.

련방제방식의 민족통일국가창립방안에서 국호를 고려민주련방공화국으로 제안한것은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제도가 존재하는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여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통일국가의 이름을 살리고 각이한 사상과 정견을 가진 사람들이 다같이 받아들일수 있는 통일국가구조와 정치체제를 정한것으로서 가장 공정한 방안으로 된다.

련방제방식의 민족통일국가를 창립하는것이 나라의 통일을 가장 공정하고 순조롭게 해결할수 있게 하는 합리적인 방도로 된다는것은 또한 그것이 민족통일국가의 성격을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이 다 지지하고 받아들일수 있도록 자주적이고 민주주의적이며 중립적인 평화애호국가로 제안하고있는데서 나타난다.

련방제방식의 민족통일국가는 통일독립된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국가이다.

자주성은 독립국가의 기본징표이며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다. 국가활동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고 자주권을 행사하여야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지킬수 있을뿐아니라 인민들의 념원에 맞게 나라의 부강발전을 이룩하며 국제관계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할수 있다.

민주주의는 모든 사회성원들, 각계각층 인민들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신성한 권리이다. 민주주의는 북과 남, 해외에서 서로 다른 사상과 정치적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다같이 공감하고 받아들일수 있는 보편적인 정치리념이다.

련방제방식의 민족통일국가는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성을 견지하고 민주주의적원칙을 철저히 구현한 민주주의국가이다.

련방제방식의 민족통일국가는 서로 다른 사상과 신앙, 정치적견해를 가진 북과 남의 각계층 사람들, 각이한 정당, 사회단체에 속한 사람들에게 정치적자유와 민주주의적권리를 광범히 보장하여주며 모든 사람들이 다같이 나라의 정사에 주인으로 참가할수 있는 조건을 지어준다.

련방제방식의 민족통일국가는 국가활동에서 중립로선을 견지하는 중립국가이다.

련방제방식의 민족통일국가가 중립국가로 되여야 하는것은 련방공화국이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가진 북과 남의 두 지역사이의 련방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사정과 관련된다.

련방제방식의 민족통일국가는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가진 북과 남사이의 련방으로 형성되기때문에 대외적으로 어느 특정한 나라에 편중하는 정책을 실시하거나 어떤 정치군사동맹이나 뿔력에 가담하면 불가피하게 통일국가내부에서 모순이 생기고 분쟁이 발생할수 있으며 결국 련방국가자체의 존재를 유지할수 없게 된다. 련방제방식의 민족통일국가는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우에 형성되는것만큼 대외적으로 중립로선을 견지하는것은 필연적인것이다.

련방제방식의 민족통일국가가 중립국가로 되여야 하는것은 국제관계에서 나라들사이의 리해관계가 복잡하게 엉켜있고 세력권쟁탈을 위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간섭이 끊임없이 강화되고있는 사정과 관련된다.

련방제방식의 민족통일국가는 평화애호적인 국가이다.

조선은 역사적으로 남을 위협했거나 침략한 일이 없다.

조선민족은 근 반세기동안이나 일제식민지통치하에서 신음하다가 독립을 쟁취하였지만 패망한 일제를 대신하여 공화국남반부를 비법적으로 강점한 미제침략자들때문에 분열되었다. 그렇기때문에 조선은 통일되어도 주변나라들에 대하여 위협으로 되지 않으며 령토팽창을 하여야 할 하등의 조건이 없다.

통일국가는 외부로부터 강요되는 침략전쟁을 반대하지만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추구하지 않으며 철저히 평화애호정책을 실시할것이다.

련방제방식의 민족통일국가창립방안은 하나의 민족으로서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로 갈라져 살고있는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이 지지하고 공감할수 있는 자주, 민주, 중립, 평화를 국가활동의 원칙으로 제안하고있는것으로 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가장 공정하고 순조롭게 해결할수 있게 하는 방안으로 된다.

련방제방식의 민족통일국가를 창립하는것이 나라의 통일을 가장 공정하고 순조롭게 해결할수 있게 하는 합리적인 방도로 된다는것은 또한 그것이 민족통일국가기관들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조직할수 있는 제안을 담고있는데서 나타난다.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고 그 어느쪽도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양보하려 하지 않는 조건에서 나라의 통일문제를 공정하고 순조롭게 해결하려면 민족통일국가기관들을 북과 남 어느쪽에도 편중되지 않게 공정하게 조직하여야 한다. 그래야 련방국가활동에서 북과 남의 리익을 다같이 보장할수 있다.

련방정부기관은 외세에 의하여 나라와 민족이 분열되어 산생된 후과들을 하루빨리 가시며 나라의 통일을 공고히 하고 민족공동의 리익을 고수하며 대외적으로는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를 대표할수 있는 국가기관조직형태와 권능을 가진 기관으로 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련방정부기관구성은 민족을 대표하고 민족의 리익을 옹호할수 있는 최고기관과 나라와 민족의 전반적리익과 관계되는 공동의 문제들을 책임지고 일상적으로 처리할수 있는 기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할 때 련방정부기관이 련방통일국가창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이바지할수 있으며 통일국가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 민족앞에 지닌 성스러운 임무를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있다.

련방제방식의 민족통일국가창립방안에서 련방정부는 대내적으로는 북과 남의 두 지역정부를 지도하면서 련방국가의 전반적인 사업을 관할하며 대외적으로는 하나의 국가를 대표하도록 되여있다.

련방제방식의 민족통일국가창립방안에서는 련방국가기관조직에서 련방구성원의 지위와 역할을 규정하고있다.

련방국가창립방안에서는 련방구성원이 련방국가기관성원선출에서 독자성을 가지며 련방국가기관성원구성에서 평등을 보장할데 대한 문제들을 밝혀주고있다.

단일한 정치체제에 기초한 련방국가와는 달리 서로 다른 제도에 기초하고있는 련방국가에서는 련방국가성원선출에서 련방구성원이 독자성을 가지게 하는것이 기본문제로 나서게 된다. 그것은 련방국가기관이 어느 한 련방구성원의 리익만을 대변하는 기관이 아닌것만큼 련방국가기관성원선출에서 련방구성원의 독자성을 보장하는 문제가 련방형성과 련방국가기관설립의 근본조건을 좌우하기때문이다.

서로 다른 두 제도를 그대로 두고 형성된 련방형식의 민족통일국가에 있어서 련방국가기관의 인적구성비율에서 평등을 보장하는것은 련방국가기관사업에서 련방구성원의 리해관계를 조화롭게 결합시키며 민족적단합을 공고히 하고 모든 문제처리에서 공정성을 담보한다.

련방국가기관에 적당한 수의 해외동포대표들이 망라되게 하는것은 련방의 국가기관이 통일된 민족을 대표하는 범민족적기관으로서 해외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리익을 옹호하고 보호하는 사업을 잘해나갈수 있도록 한다.

련방제방식의 민족통일국가창립방안에서는 련방국가기관의 책임직은 공동책임제로 하며 직무리행은 료번제로 하도록 제안하고있다. 이것은 련방국가기관운영에서 합리성을 보장하게 한다. 련방국가기관운영에서 합리성이 보장되어야 련방과 련방구성원간의 단합을 공고히 하고 련방적인 요구와 련방구성원의 요구를 다같이 조화롭게 실현하여 나갈수 있다.

련방제방식의 민족통일국가창립방안에서는 련방정부와 지역정부의 권능한계를 공정하게 정함으로써 련방제방식의 민족통일국가를 공고히 하고 민족의 통일적발전과 룡성변영을 이룩할수 있는 제안을 담고있다.

련방정부와 지역정부의 권능한계를 합리적으로 공명정대하게 정하는것은 련방을 공고히 하고 민족의 통일적발전과 룡성변영을 이룩할수 있게 하는 기본담보로 된다.

련방제방식의 민족통일국가창립방안에는 련방형성과 련방의 점차적인 완성을 용이하게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는 지역자치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며 점차적으로 련방정부의 기능을 더욱더 높여나가는 방향에서 권한분담을 할데 대하여 지적하고있다.

련방공화국의 련방정부와 지역자치정부와의 권한에 관한 조화로운 분담은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에 기초하고있는 북과 남의 련방구성원들의 독자성을 보장하면서도 련방의 기초를 튼튼히 다지게 하며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발전을 확고히 담보하게 한다.

련방제방식의 민족통일국가를 창립하는것이 나라의 통일을 가장 공정하고 순조롭게 해결할수 있게 하는 합리적인 방도로 된다는것은 또한 그것이 북과 남의 쌍방의 리익을 다같이 도모하고 민족의 통일적인 발전을 보장할수 있도록 통일국가의 활동방침을 규제하고있는데서 나타난다.

련방제방식의 민족통일국가는 정치분야에서는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고 자주적인 정책을 실시하며 나라의 전지역과 사회의 모든 분야에 걸쳐 민주주의를 실시하고 민족대단결을 도모하며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리익을 도모하고 보호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경제분야에서는 북과 남사이에 경제적합작과 교류를 실시하고 민족경제의 자립적발전을 보장하며 북과 남사이에 끊어졌던 교통과 체신을 련결하고 전국적범위에서 교통, 체신수단의 자유로운 리용을 보장하며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대중과 전체 인민들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그들의 복리를 계통적으로 증진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문화분야에서는 북과 남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과학연구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과학기술분야의 성과와 경험을 널리 교환하도록 하며 나라의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북과 남의 예술인들과 체육인들사이의 교류와 합작을 적극 장려하고 북과 남의 과학자들이 공동으로 민족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보호관리

하며 고유한 우리 말과 글을 연구발전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인민적인 교육제도를 발전시키고 교육사업을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적극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우수한 민족기술인재를 많이 양성하며 전체 인민의 문화지식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한다.

련방제방식의 민족통일국가의 활동방침은 전체 조선민족의 공통된 지향과 요구를 반영하고있으며 통일된 조선이 나아갈 앞길을 뚜렷이 명시한 가장 정당하고 합리적인 방침이다.

련방제방식의 민족통일국가가 수립되면 우리 민족은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고 하나의 민족으로서 대단합을 이룩하게 될것이며 우리 나라는 자주적이고 평화애호적이며 중립적인 민족통일국가로 될것이다.

통일된 련방국가는 주변나라들의 리해관계도 침해하지 않을것이며 그 나라들에 위협으로도 되지 않을것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련방제방식의 통일실현으로 전민족이 떨쳐나설것을 호소하신것은 앞으로 조선반도의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관계없이 조국통일은 오직 가장 합리적인 통일방도인 련방제방식에 의한 민족통일국가창립에 의해서만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다는 불변의 진리를 다시금 내외에 확인시키신것이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조국통일유훈을 높이 받들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련방제방식으로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려나가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련방제방식, 민족통일국가